

의 방향으로 동의하며, 시대성이 담긴 선교신학의 발전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서도 디아스포라 선교신학이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시작된 선교학적 접근이지만, 여기서 발견된 원칙과 진리들이 디아스포라를 넘어서, 디아스포라가 아닌 일반 교회와 일반 회중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함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동하고 세계화된 사회에 디아스포라적인 관점과 접근은 디아스포라 교회와 회중뿐 아니라, 현지의 교회와 사회까지도 새로운 해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상황에서의 디아스포라 선교신학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상황에서의 디아스포라 선교신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해석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고민과 응답이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과 그들이 속한 교회공동체의 존재 의미와 선교적인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해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는 중국이라는 영토 안에 존재하는 중국 교회들보다 선교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³⁵²⁾ 이는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들이 선교의 유리한 조건을 다수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는 타문화와 외국어에 대한 경험이 있다. 타문화권에 대한 이러한 선 이해는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선교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해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에서 자유롭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북미와 유럽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는 이미 현지에 구축된 오랜 역사의 선교 인프라와 노하우에 쉽게 연결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자유롭게 선교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시진핑 체제 이후로 중국 교

352) Wu, *Mission through Diaspora*, 29-30.

회가 해외에서의 선교활동의 큰 제약을 받는 상황과³⁵³⁾ 상당히 상반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일본은 그 자체로 선교가 굉장히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일본 내에서 타문화 선교를 실천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있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현장은 디아스포라 선교신학의 정의에서도 강조한 디아스포라 선교신학의 목적인 조국과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최적의 선교 현장이다.

디아스포라 선교신학은 디아스포라 환경 가운데 흠어져 살아가는 나그네 된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게 정체성과 사명감을 확고하게 해주고 있다. 표류하는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과 사명감만큼 소중한 것이 또 있을까?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선교신학은 그만큼 의미가 크다.

디아스포라 선교신학은 전통적인 선교신학에 비해서 매우 통합적이고, 글로벌하며, 현장 중심적인 경향을 보인다.³⁵⁴⁾ 이러한 특징은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환경에 적절한 이론적 해석을 제공한다. 탈영토적이며, 글로벌(global)한 관점은 새로운 공간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며, 글로벌한 경험이 있지만, 로컬이 중요한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게 선교신학적인 지지를 보내준다. 디아스포라 삶에 대한 이러한 적절한 선교신학적인 해석은 디아스포라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아스포라 선교신학의 특징 중 하나는 디아스포라가 가진 독특한 사유(思惟)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디아스포라의 사유는 이주에 따른 개방적이면서 고정되지 않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디아스포라는 창조적이고 풍부한 정체성을 보인다.³⁵⁵⁾ 그리고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은 선교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선교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경계를 넘어서 이주

353) 함태경, “시진핑의 장기 집권 체제와중국 교회, 중국선교 그리고 선교중국,” 123.

354) Wan, *Diaspora Missiology*, 3368/14476.

355) Cohen, 『글로벌 디아스포라: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28.

하는 디아스포라의 정신은 선교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 디아스포라 사유는 정주(定住)의 사유와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정주의 사유는 고정적이고 안정적이며 폐쇄성을 띤다.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이러한 개방성과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주의 사유다. 창조적이고 풍부한 개방성과 유동성은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가 선교 지향적인 경향을 보이게 한다. 물론 디아스포라라는 사실 자체로 이주의 사유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디아스포라 중에도 정주의 사유를 하는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관건은 그 사유가 과연 디아스포라적인 사유로 볼 수 있는가이다. 연구자가 2009년 도쿄에서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를 시작할 때, 이미 도쿄에 자리 잡은 중국인 사역자들을 많이 만났다. 연구자의 개인적인 발견으로는 그중 적지 않은 이들이 이주의 사유가 아닌 정주의 사유를 하고 있었다. 기존의 교회 안에 사역에 만족해했고 교회 밖의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선교계획이나 실행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럴 역량도 없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이미 기존의 교회는 본 교회 목양으로도 매우 분주했다. 그런데 사실 당시 교회 안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은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수의 0.2% 정도에 불과했고, 99.8%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교회 밖에 있었다.³⁵⁶⁾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나 선교적인 시야로 바라볼 때, 0.2%에만 집중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그런데 정주의 사유는 쉽게 0.2%에 시선을 사로잡힌다. 시야에 포착되는 0.2%가 시야에서 들어오지 않는 99.8%보다 더 크고 많아 보인다. 연구자는 이런 착시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정주의 사유라고 판단한다. 정주의 사유는 이주의 사유보다 선교적인 사유로 연결되기가 어렵다.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디아스포라답게 사유하는 것이다. 정주 중심의 사유가 아닌 이주가 중심이 되는 선교신학적인 사유를 말한다.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자신들 고유의 이주민다운 유동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주는 선교신학은 디아스포라 선교신학의 장점이다.

356) Park, *Diaspora Missions at a Glance*, 16.

B.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이해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은 넓은 범위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중국인 범주 안에 있다. 따라서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넓은 범위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중국인과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1. 디아스포라 중국인

디아스포라 중국인(*Chinese Diaspora*)은³⁵⁷⁾ 디아스포라 중국이라는 영토의 경계를 넘어서 중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계 이주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³⁵⁸⁾ 여기에는 이주자뿐만 아니라, 이주자의 후손들도 포함한다.³⁵⁹⁾ 디아스포라 중국인에 관한 이해는 이들의 이주의 역사로부터 시작된다. 현재 존재하는 디아스포라 중국인은 시공간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들은 역사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해 왔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중국인에 대한 이해는 중국인들의 해외 이주에 관한 역사적 고찰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

357) 마일즈는(Steven B. Miles) 자신의 책 *Chinese Diasporas (New Approaches to Asian History)*에서 '디아스포라 중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할 때, 이 용어가 가진 한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함으로써, 이 용어가 가진 한계를 이해하고 접근할 것을 알려준다. 첫째, 디아스포라라는 의미는 원래 유대인의 경험에서 형성된 단어로, 그 안에는 피해자의 이미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의미가 강하게 남아 있어 16세기 이후 형성된 디아스포라 중국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둘째, 이 용어를 느슨하게 적용할 때, 단일 객체로서 연구를 개념화할 우려가 있어 다양한 디아스포라의 배경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셋째, 이미 오래된 디아스포라 생활로 이미 현지화된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게도 중국이 필수적이고 변함없는 뿌리라는 암시를 쉽게 받아들여지게 할 수도 있다; Miles, *Chinese Diasporas*, 5.

358) 임채완, 『화교 디아스포라: 이주 루트와 기억의 역사』, 30.

359) Miles, *Chinese Diasporas*, 4.

다.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이주의 원인, 배경, 그리고 유형을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이들의 특징을 발견하여 지금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기원을 어디로 볼 것인가? 에는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빠르게는 진한(秦漢) 시기를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형성기로 보는 견해가 있기는 하나 지지를 많이 얻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국과 남양(南洋) 각국의 무역이 활발했던 한대(漢代), 위진(魏晉), 수대(隋代)까지도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의 이론적 근거는 빈약하며, 특히 당시 간헐적인 해외 이주가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이들이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주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기원은 당대(唐代)다. 이론적 근거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또 다른 이름으로 자주 당인(唐人)이라는 명칭이 사용된다는 점, 그리고 한 대 이후 개척된 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활발했던 남해무역, 전례 없던 대규모 외국 상인의 왕래와 대식(大食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지역) 등의 지역에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살았다는 『경행기(經行記)』 등의 기록이다. 그렇지만 당인이라는 칭호는 후대에 정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대규모 이주의 근거도 희박한 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멀리는 선진시기부터 당대까지 해외에 이주한 이들을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선조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시기를 현재 존재하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직접적인 기원으로 보기는 어렵다.³⁶⁰⁾

그렇다면 비교적 설득력 있는 기원은 언제일까? 해외 이주민이 중국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있으며, 지속적이면서도 규모 있는 이주가 이루어진 시기라는 구성요소를 가져야 한다.³⁶¹⁾ 이러한 면에서 천삐썩(陳碧笙, Chen Bi Sheng)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기원의 상한선을 송대(宋代 10세기~13세기)로

360) 임채완, 『화교 디아스포라: 이주 루트와 기억의 역사』, 39-40.

361) 같은 곳.

보는 주장은 타당성을 갖는다. 천삐쟁은 그 근거로 송대에 첫째, 당시 연해 지역의 개발과 인구의 급속한 증가 했다. 둘째, 상품화폐 경제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셋째, 사회계층 구조의 변동이 있었다. 넷째, 조선과 향해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제시했다.³⁶²⁾ 따라서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기원 상한선을 송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송대를 기원으로 하는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이주는 중국의 역사발전, 사회와 경제 변화, 그리고 주변 국가와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런 변화를 종합하여 시대와 특징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2세기 초 남송 건염(建炎) 원년부터 16세기 후반 명 융경(隆慶) 연간의 해금(海禁) 해제에 이르기까지의 400~500년간이다. 이 시기에 중국의 상품경제는 전례 없이 발전했고, 봉건 경제 최고 전성기를 구사했다. 당시 중국은 아시아 최고의 경제 대국이었고, 반면 동남아시아 각지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격차가 심했다. 중국 상인들은 자국의 우수한 물품들을 가지고 동남아 각지에 대거 진출해서 교역을 벌였고, 이들은 현지의 환영을 받았다. 이들이 제1세대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다.³⁶³⁾ 처음에 수마트라, 자바 등 중서(中西) 교통의 중심지에 거주했던 이들은 점차 인도차이나의 샴(Siam), 푸감(Bugam), 말레이반도의 말라카(Melaka), 조호르(Johore) 등으로 흩어져 나갔다. 그리고 동양 향로의 개발로 필리핀 제도의 루손, 바타네스, 세부, 술루, 그리고 보르네오의 브루나이 등 지역으로도 확대되었다. 당시 이들은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를 지켜나갔다. 여성의 이주가 쉽지 않은 시대여서 현지의 여성과 결혼하여 다문화 가정이 생겨났고 현지 사회에 융화되어 지도자가 되는 예도 있었다. 당시 이주의 주원인은 경제적이었으나 이 외에도 정치적 원인으로 이주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송나라의 멸망

362) 陳碧笙, “关于华侨史分期的几个问题(화교역사 구분에 관한 몇 가지 문제들),” 『社会科学战线』 4期, 1983, 155-156.

363) 임채완 외 4인, 『화교 디아스포라: 이주루트와 기억의 역사』, 41.

이후 송의 대신들이 안남, 점성, 삼 등으로 망명을 했다.³⁶⁴⁾ 또한 1292년 쿠빌라이 칸은 복건(福建), 강서(江西), 호광(湖廣)에서 병사 3만 명을 모집해서 동남아 원정길에 올라 인도네시아 자바에까지 이르렀으나, 만여 명의 부상병을 남기고 회군했다. 이 과정에 많은 이주민이 발생했다. 이 외에도 명대 정화(鄭和)는 1405년부터 1433년까지 7차례에 걸쳐 해양 원정에 나서 동남아시아에서 멀리 아프리카 동부 해안까지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정화와 함께했던 원정대 가운데 현지에 잔류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정화는 현지의 중국인 이주민 사회를 안정시켜 디아스포라 중국인과 그 사회 발전에 공언했다.³⁶⁵⁾

두 번째 시기는 16세기 후반 해금(海禁)이 해제된 후부터 시작해서 1840년 아편전쟁 발생 전까지의 300년간이다. 이 시기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자본주의가 싹을 트기 시작했던 시기로, 대량의 이주가 발생했으며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거주국에서 경제적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던 때였다. 이 기간의 특징은 서구 열강이 동남아 일부 자신들의 식민지 혹은 중계 무역지로 삼으면서 중국과 동남아 지역 간에 경제 발전상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열강의 상업 자본주의는 봉건주의 경제를 압도하면서, 중국의 노동 인력의 이주를 유인하는 강력한 흡인요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서 대규모 집단 이주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주 지역도 넓어져 동남아를 넘어서 동쪽으로는 조선과 일본까지, 서쪽으로는 인도 동부 해안까지, 북쪽으로는 미얀마(Myanmar)의 이라와디(Irrawaddy) 강 상류로부터 인도네시아 제도까지 펼쳐졌다. 이 가운데서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조선 등에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17세기 중엽에는 스페인령 루손에 2~3만 명, 1790년 전후해서는 네덜란드령 자카르타 일대에 10만 명, 타이에 약 44만 명으로, 전체적으로 17~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약 100만 명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이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364) 陳碧笙, “关于华侨史分期的几个问题(화교역사 구분에 관한 몇 가지 문제들),” 156-157.

365) 최승현, 『화교의 역사-생존의 역사』, 서울: 화약고, 2006, 31-33/352.

현지에서 현지인들보다 상공업에 뛰어난 활동을 보이며 경제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동방의 유대인으로 불릴 정도였다.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현지인들과 식민지 당국의 폭력에 희생되기도 했다. 만 명 이상 희생된 대학살만 4차례가 일어났다.³⁶⁶⁾

세 번째 시기는 아편전쟁이 일어난 1840년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후의 100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다. 이 시기는 중국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격변의 시기였다. 우선은 아편전쟁으로 중국은 본격적으로 반식민반봉건(半殖民地半封建) 시기로 근대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 기간에 나타난 이주의 특징은 대규모 화공(華工)³⁶⁷⁾의 출현이다. 이로 말미암아 중국인의 해외 이주는 절정에 달하고, 현대 디아스포라 중국인사회의 주류가 형성된다. 이 시기에 중국의 내부 사정은 실로 열악했다. 지속적인 내전,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 혼돈의 정치 그리고 붕괴 직전의 경제 상황은 이주를 촉진하는 충분한 배출요인이었다. 특히 중국의 동남 연해안 지방은 이주의 중심지였다. 이 지역은 최대의 인구 밀집 지역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경작지는 감소하고, 식량난이 심각했다. 인구과잉, 사회적 혼란, 생태계 파괴가 반복되었다. 이로 인해 복건(福建) 남부, 광둥(廣東) 동부를 중심으로 이주가 발생했다. 장강(長江)이나 황허(黃河) 양대 강 유역의 인구들은 이런 혼란의 시기에 전쟁이나 북방으로의 이주를 했지만, 동남 해안 일대의 사람들은 눈앞의 바다를 건너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서구제국주의 식민지정책이 활발하게 전

366) 陳碧笙, “关于华侨史分期的几个问题(화교역사 구분에 관한 몇 가지 문제들),” 157-158.

367) 화공(華工, Coolie)은 아편전쟁(184-1842)에 청나라가 패하고, 당시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서구제국주의 국가들이 노예해방으로 전 세계 식민지에 인력 부족에 처하게 되자, 중국에서 인력을 공급하면서 생겨난 인력무역 형태다. 중국 남부의 인구급증과 자원 부족, 여기에 서구제국주의의 인력 필요가 겹치지면서, 대량의 인력이(주로 중국 남부) 반강제적, 반인권적인 무역의 형태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북미, 쿠바, 오스트리아 등으로 송출되었다. 형식은 자발적이었지만, 브로커의 중간 갈취, 노동력 착취, 주거환경의 미비, 계약의 파기, 운송의 비인도적 대우 등으로 아프리카 흑인 노예의 고통에 버금가는 고통을 노동이주자들에게 주었고,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냈다. 결국, 국제적인 비난으로 1845년부터 시작된 화공무역은 1874년에 중지되게 된다; 華僑華人の事典編輯委員會, 『華僑華人の事典』, 26-27.

개되고 있던 때였다. 식민지 종주국들은 동남아에서 광산개발, 고무 농장, 미주와 호주에서의 금광 개발, 미국 중앙 태평양 철도와 러시아 시베리아 철로 구축 등을 추구하면서 노동력 수요가 급증했다. 또한 흑인 무역이 금지되면서 서구 식민지국들은 부족한 노동력 수급을 위해서 인구과잉 현상을 보이는 중국에 주목했다. 그리고 소위 계약이민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노예무역인 쿨리무역이 본격화되었다. 해외 이주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이주한 디아스포라 중국인은 천만 명에 달했다. 이들의 분포는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북미,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로 확장되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자리 잡은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이들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중국사회의 격변기마다 적극적으로 고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참여해 혁신적 역할을 감당했다. 1840년부터 1949년까지 이주한 사람들의 통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약 1,5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³⁶⁸⁾

네 번째 시기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1978년 개혁개방이 시작되기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이후, 사회주의 체제라는 특수한 상황과 동남아 각국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이 맞물려 대량 이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당시 중국 내 분위기는 이민을 서구제국주의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하는 분위기였다. 여기에 동남아 국가들도 공산주의 중국에 의심과 경계가 있었다.³⁶⁹⁾ 이 시기에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자신의 거주국에서 사회정치적 지위가 안정되어서 현지의 구성원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었다. 동남아에서 디아스포라 중국인은 매우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했으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동기간에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2세 출산 등으로 자연증가가 일어났고, 유학 등의 방법으로 여전히 작은 단위의 이주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숫자는 최소 1,700만 명에서 최대 4,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368) 임채완 외 4인, 『화교 디아스포라: 이주루트와 기억의 역사』, 45-48.

369) Wu, *Mission through Diaspora*, 579.

또한 일부 국가의 이민정책 변화로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의 지역으로 수십만 명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이주가 일어났다.³⁷⁰⁾

다섯 번째 시기는 1978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개혁개방 조치 이후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는 새로운 이주의 시기다. 이 시기를 신이민(新移民) 시기라고도 부른다. 이 기간에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이주가 일어났다. 이 시기의 이주에 목적지는 주로 북미와 유럽이었다. 이 기간에 일어난 이주의 반수 이상이 북미를 향했다. 그리고 북미에 이주 온 사람들은 전문 인력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³⁷¹⁾

신이민은 구이민(舊移民)과 구별되어 불리는 명칭인데 영어를 사용하여 뉴커머(newcomer)³⁷²⁾, 올드커머(oldcomer)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 신이민은 1978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취한 이후로 해외에 이주해 정착한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말한다. 이들은 여러 면에서 이전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과 구별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되는 용어를 사용하여 호칭한다. 신이민자로 분류할 수 있는 이주민은 약 6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국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1978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에서 해외로 나간 중국 유학생은 4,042,100에 이르며, 이들의 동반 가족까지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로 추정된다.³⁷³⁾

미국의 경우 1965년 이민법 통과 이후 1980 후반에 이르기까지, 캐나다의 경우 1967년 이민정책 개정 이후에 북미에 들어온 중국인 이민은 주로 홍콩, 대만, 동남아에서 재이민해 온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후손들이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그 영향으로 1980년대에 시작해 199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국 출신의 학생들과 학자 그룹들이 대거 유학

370) 陳碧笙, “关于华侨史分期的几个问题(화교역사 구분에 관한 몇 가지 문제들),” 159-160.

371) Miles, *Chinese Diasporas*, 196-198.

372) 참고로 뉴커머라는 용어는 다른 디아스포라와 용어 사용이 유사한데,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에 건너가 정착한 대한민국 국적자, 즉 디아스포라 한국인을 말하기도 한다.

373) 華僑華人事典編輯委員會, 『華僑華人事典』, 108-109.

이나 방문학자로 북미에 들어왔으며 이들은 미국 대학에서 가장 큰 외국인 그룹이 되었다. 1978~1998년 사이의 통계를 살펴보면, 중국의 증대 도시 출신 인재들의 북미집중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기간에 약 30만 명의 유학생이 북미로 이주한 것으로 파악된다.³⁷⁴⁾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대학교육 기관들은 재정 자구책으로 적극적으로 중국에서 학생을 유치했고, 이들은 1980년대나 1990년대와는 다른 유형의 유학생들이었다. 과거에는 대학원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학생들 위주였지만 이제는 많은 학비를 지급하는 어린 학생들로 그 자리가 채워졌다. 그리고 유학은 중국에서 새로운 이주의 형태가 되었다. 중국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8년에서 2012까지의 기간만 해도 약 140만 명이 유학을 떠났다. 중국은 북미와 유럽, 일본, 호주, 영국, 독일 등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국제 학생을 송출하는 국가가 되었다.³⁷⁵⁾

신이민자들의 직업은 기존의 이들과 달라졌다. 기존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주로 산빠따오(三把刀)라³⁷⁶⁾ 불리는 어렵고 힘든 직업군에 종사했었다. 그러나 신이민자 중에는 지식인 출신이 많았고 이들은 전문직을 비롯해 다양한 직업군에 진출했다. 특히 이들의 현지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공헌이 늘어갔다. 이로 말미암아 북미에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각종 전문가 단체가 결성되어서 활동했다. 한편 서유럽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신이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피혁과 의류 사업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다. 1997년에는 나폴리에 200개, 베니스에 500개 공장이 중국인 소유가 되었다. 이 신이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자녀교육을 위한 중국어 학교, 사회 활동을 위한 중국어 신문잡지 발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1995년 통계에 따르면

374) Wu, *Mission through Diaspora*, 590.

375) Miles, *Chinese Diasporas*, 229, 231.

376) 산빠따오는 삼도업(三刀業)을 일컫는 말로, 가위와 면도칼, 식칼 기술을 사용하여 종사하는 세 개의 직종, 즉 이발사, 요리사, 양복 재단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직위와 급여가 낮고 고된 직업군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초기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어려운 생업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정희, 『화교가 없는 나라』, 서울: 리더북스, <https://bityl.co/ACx4>, 2018, 33/166.

미국의 중국어 학교는 150곳, 등록 학생 수 4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 학교의 대부분이 신이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1997년 8월 통계에 의하면 유럽의 12개 국가에 35개의 중국어 신문잡지 매체가 만들어졌다. 신이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는 이들이 매우 친밀한 모국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신이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대부분 현대화된 중국에서 어느 정도의 고등교육을 받을 정도로 장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의 고국에 대한 감정은 비교적 깊고 애국심도 강하다. 둘째로, 이전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생존하기에 급급했다면, 신이민 디아스포라 중국인 중에는 여유 있는 생활과 자기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현지 사회에 참여하고 주류사회에 합류했다. 이들의 활약은 문화, 예술 분야까지 퍼져나갔다. 셋째로, 신이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중국과 거주국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이해를 기초로 양국의 우호 발전에 대한 공헌하는 이들이 늘어났다.³⁷⁷⁾

신이민으로 두드러진 도약과 발전을 보인 지역 중 하나는 아프리카다. 아프리카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는 15세기 명나라 정화 원정대의 아프리카 방문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냉전 이후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해외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 이곳은 자원의 보고이며, 중국정부의 관심지다. 시진핑 주석의 취임이후 첫 방문지도 아프리카였다.³⁷⁸⁾ 근래에 이르러 중국과 아프리카와의 관계는 급진전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증가했다. 아프리카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숫자는 1996년 136,000에서 2012년 110만 명에 이른다. 특히 앙골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중국인들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아프리카의 신이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종사하는 분야는 소매업, 무역, 요식업, 여행업, 운수업, 방직, 제조업, 건축, 의료 사업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또한 신이민 디

377) 赵红英, “试论中国大陆新移民的特征(중국대륙 신이민의 특징에 대한 시론),”八桂桥刊(第3期), 2001, 12-13.

378) Howard W. French, *China's Second Continent*, 박홍경 역, 『아프리카, 중국의 두 번째 대륙』,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11.

아스포라 중국인들은 현지 사회의 공공영역에서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³⁷⁹⁾

2000년 이후 디아스포라 중국인 이주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기술이민, 투자이민 등 새로운 형태의 이민이다. 이는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경력을 지닌 이들이 미국, 태나다, 오스트리아 등의 고급인력 이민정책을 이용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형태다. 캐나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1996년 중국 출신 기술이민자의 수는 721명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약 37배가 늘어난 26,634명에 다다랐다. 투자이민의 경우, 부유한 중국인들이 북미나 유럽의 국가들이 일정 액수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면 투자자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이주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³⁸⁰⁾

신이민 시기에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1989년 발생한 6.4 천안문 사태가 가져온 변화다. 중국학자들은 서구학자 혹은 대만, 홍콩계 학자들과는 달리 거의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다. 이들은 1989년 6월 이후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 일어난 이주와 종교에 대한 거대한 변화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 천안문 사태는 중국에서 여전히 금기시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중국 지성인 선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1989년 6월 이전과 이후는 디아스포라 중국인, 특히 지성인들에게 이주, 귀화, 신앙이라는 주제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하게 했다. 북미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쑤원펑(蘇文峰, Su Wenfeng)에 따르면, 1989년 6월 이후 중국 지식인들과 해외 중국인 유학생 사이에는 전에 없었던 기독교 열풍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 중국의 수많은 지식인이 중국공산당에 실망하고 중국을 떠났으며 공의에 목말라했다. 이로 말미암아 북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들은 전례 없던 추수의 시기를 맞이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1992년 중국 학생 보호법안(Chinese Student Protection Act of 1992)을 발효하여 중국 출신 유학생과 유력인사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했다. 이 법안은 디아스포라 중국인 이주의 큰 물결을 만들었던 1965년의 이민법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했다.

379) 華僑華人の事典編輯委員會, 『華僑華人の事典』, 414-415.

380) 위의 글, 108-109.

이 법안으로 1998년까지 총 53,000명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들 대부분이 북미에 거주하던 학생 혹은 학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북미 화인교회에 합류했으며 이들로 말미암아 북미 화인교회의 인적 구성이 과거 홍콩, 대만, 동남아 출신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에서 중국 출신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기에 이런 유학생, 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공부반, 선교단체, 교회, 수양회, 각종 기독교 잡지가 발행되었다. 이 시기에 북미에 있던 유학생, 학자들의 약 10%가 예수를 믿었고, 약 500여 명이 전임사역자로 헌신했다.³⁸¹⁾

1989년 6월 이후로 적지 않은 영향력 있는 대륙 배경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복음 전도자들이 등장했다. 그중 주목할 만한 사람은 천안문 사태 때, 학생 지도자 역할을 맡았다가 후에 망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헌신해 목사가 된 위엔쯔밍(遠志明, Yuan Zhiming), 쟡보리(張伯笠, Zhang Boli) 등이 있다. 이들은 후에 전 세계 디아스포라 중국인 복음 전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³⁸²⁾ 1989년 6월 이후 북미와 유럽으로 망명한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중국 지식인 그룹에 복음이 들어간 이후 최초의 부흥이 일어났다.³⁸³⁾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이주 특징을 명확하면서도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분류 방법이 있다. 왕경우(王庚武, Wang GengWu)의 분류인데, 그는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이주를 화상형(華商型, trader pattern), 화공형(華工型, Chinese coolie pattern), 화교형(華僑型 Chinese sojourner pattern), 화의형(華裔型 Chinese descent or re-migrant pattern)의 4가지 형태로 나누었다.³⁸⁴⁾ 이중 화상형은 화공형 보다 좀 더 이른 시기로,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이주 시기에 포함해서 연구했다. 이들은 주로 상업과 무역을 통해서 동남아에 이주했

381) 蘇文峰, 『大洋彼岸的長河-美國華人查經班回顧與展望(미국 중국인 성경공부 모임의 회고와 전망)』, 16-17.

382) 百古樂, “在日華人教會在日華人教會の布教と課題: 在日華人クリスチャンセンターの活動を事例に,” 275.

383) 王怡, 『십자가를 짊어지고(중국가정교회 역사 1807-2018)』, 194.

384) 華僑華人の事典編輯委員會, 『華僑華人の事典』, 42.

다. 화공형은 본 논문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시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불평등한 장기계약 노동자로 이주한 형태를 말한다. 이들은 근대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었다. 화의형은 주로 화상형과 화공형의 후손들로 동남아의 각국 상황에 따라서 북미와 유럽으로 재이주한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말한다.

[도표 10]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이주 변천사³⁸⁵⁾

	연대	특징	내용	규모
제1시기	12세기 초부터 16세기 후반 해금 시기까지 (400~500여 년간)	중국경제의 발달, 우수한 상품으로 동남아 진출	환영받는 상인 이주민으로	
제2시기	16세기 후반 해금 해제부터 1840년 아편전쟁 때까지 (300여 년간)	중국의 노동 인력이 열강의 식민지였던 동남아시아로	현지 경제권 장악, 시기와 핍박의 대상으로	약 100만 명
제3시기	1840년 아편전쟁 때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때까지(100여 년간)	반식민 반봉건 시대로, 대량 이주의 시기	정치 불안, 자연재해로, 대규모 화공출현	약1,500만 명
제4시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에서 1978년 개혁개방 시행 이전(30년간)	소규모 이주	중국의 출국 제한, 동남아시아의 중국인 입국 제한, 디아스포라 현지 자연증가, 소규모 유학 이주	
제5시기	1978년 개혁개방부터 현재까지(43년간)	신이민 시기 중화인민공화 국 건국 이후 첫 대규모 이주	뉴커머 지식 계층, 전문인 이주 하이웨이(海歸)출현	600만 명 이상

385) 이 표는 연구자가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이주에 관한 정보를 연대, 특징, 내용, 규모로 정리하여 다섯 번의 시기로 분류한 표이다.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인구수는³⁸⁶⁾ 현재 전체적으로 4,900만을 넘어서 5,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³⁸⁷⁾ 여기에 홍콩, 마카오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을 더하면 약 7,70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³⁸⁸⁾ 그리고 이 분포는 아시아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타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순으로 나타난다. 거주국 인구 구성 중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비율을 보면 싱가포르가 76%로 제일 높고, 다음으로 말레이시아 30.5%, 브루나이 23% 등으로 나타난다.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중국의 출신지별로 살펴보면 광둥 출신이 60%, 복건 출신이 30%로 남부 해안지역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최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현상은 고국인 중국으로 회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을 중국어로 하이웨이(海歸, returner, Hai Gui)라고 하는데, 중국에는 이들로 결성된 일반단체도 있으며, 이들만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선교단체도 존재한다. 중국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1978년부터 2015년까지 총 404만 2,100명이 유학을 떠났고, 이 중 221만 8,600명이 귀국했다. 이런 새로운 귀국 흐름은 중국정부의 귀국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개혁과 지원, 중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중국 국내 여건의 개선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다.³⁸⁹⁾

하이웨이는 디아스포라 현상으로 생겨난 또 다른 선교공간이다. 중국정부의 해외 유학생과 전문가 유치를 위한 정책의 변화와 미국이민 정책의 변동으로 유럽이나 북미에 정착하지 않고 중국으로 귀국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2018년 처음으로 귀국자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그중 5~

386) 디아스포라 중국인에 대한 통계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떠나 1년 이상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본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의 인구도 디아스포라 중국인 계수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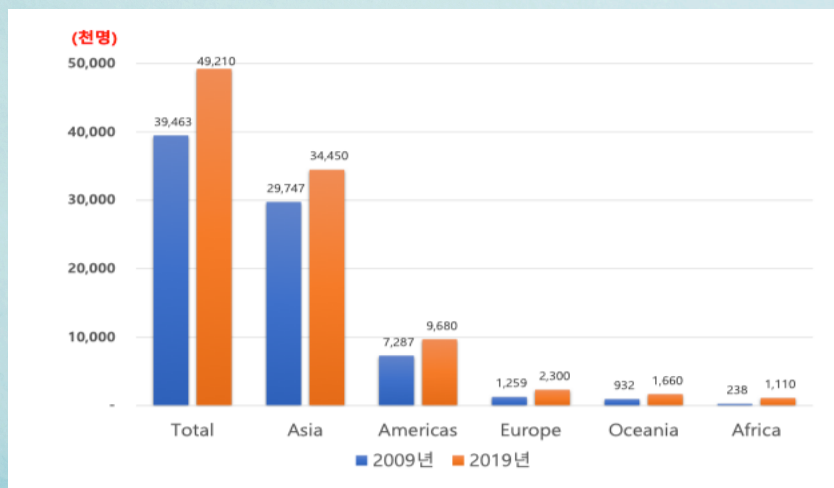
387) 김중호, 『화교 이야기-중국과 동남아 세계를 이해하는 키워드』, 서울: 너머북스, 2021, 5.

388) 임채완 외 4인, 『화교 디아스포라: 이주루트와 기억의 역사』, 48-49.

389) 華僑華人之事典編輯委員會, 『華僑華人之事典』, 103.

10%를 그리스도인으로 보는데, 매년 약 2만5천에서 5만 명의 그리스도인 하이웨이(하이웨이)가 귀국길에 오른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북미 하이웨이 사역 세미나(RMF2017)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귀국 후 중국 현지교회에 적응을 못 하고 신앙을 잃는 경우가 80%에 달한다고 한다. 하이웨이 사역은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시작된 사역이다. 귀국하는 하이웨이들이 국내 교회, 사회, 영적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귀국 전후에 교육, 훈련, 돌봄 사역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서 귀국하는 하이웨이의 유실을 줄이고 이들이 중국이라는 고국의 현장에서 신앙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는다. 하이웨이 사역은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고국에서 새로운 선교의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단순히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신앙을 돕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으며, 이들을 선교적으로 동원하고, 중국 교회와 해외 교회를 선교적으로 연결하는 일도 해낸다. 이들의 이중문화 경험은 중국 교회 내에서 중국 교회를 선교와 밀착시키는 데 중요한 도움을 준다.³⁹⁰⁾

[도표 11] 세계 디아스포라 중국인 통계(2009, 2019) ³⁹¹⁾



390) <http://behold.oc.org/?p=42938>, 접속일: 2021년 5월 2일.

391) <https://bityl.co/8kZD>, 접속일: 2021년 3월8일.

2.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일본의 화교 사회 출현은 16세기 후반으로 추정되지만,³⁹²⁾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역사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와 관련이 깊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은 거주 규모나 거주 인원으로 비교하면 동남아의 화교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지만, 역사의 유구함이나 교류의 빈번함은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 특히 에도(江戸) 시절 당인(唐人)이라 불리는 당나라 상인들의 도일은 규모에서도 적지 않았다. 당시 일본의 유일한 개항장은 나가사키(長崎)였는데, 가장 많을 때는 1688년으로 도항한 선박만 192척, 당인의 수가 9,000명에 이르렀고, 이는 당시 나가사키 인구의 1/6을 차지할 만큼 규모가 있었다. 도일 선박이나 당인의 수는 계절이나 상황에 따라 많게는 수천 명 적게는 수백 명이였다. 당시 당인 중에는 체류가 장기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이들 중에는 일본인 아내와 국제결혼을 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이들의 후손 중에는 명치시대(明治時代)에 대활약하는 이들도 나타났다.³⁹³⁾

일본에서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역사 시작은 1858년 일본의 막부(幕府) 정부가 유럽의 5개국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과 관련이 깊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하코다테(函館), 요코하마(横浜), 나가사키(長崎)를 개항했다. 당시 청나라는 조약 당사국이 아니었지만, 중국인들은 외국인 부속 청국인(外國人附屬清國人)의 신분으로 일본에 들어왔다. 이들은 주로 유럽 상인들의 중간상인이나 가사도우미 임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1871년 일본과 청나라와의 정식 수호조약이 체결되고, 이를 기점으로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급증했다. 이때부터 요코하마(横浜), 나가사키(長崎), 고베(神戸)에 오늘날의 차이나타운 기초가 되는 중국인 거리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청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부침을 겪긴 하지만,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개항장 외에도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도쿄, 나가사키, 나고야, 오사카, 고베, 하코다테 등지에 디아

392) 小林幹夫, 『新日本華人』, 336.

393) 華僑華人の事典編輯委員會, 『華僑華人の事典』, 190.

스포라 중국인사회의 구심점인 동향회, 동업단체 등이 설립되기 시작했고, 디아스포라 중국인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화회관(中華會館)이 요코하마(1867년), 고베(1892년), 하코다테(1910년)에 세워졌다. 회관은 중국인들의 관혼상제의 중심역할을 감당했다.³⁹⁴⁾

태평양 전쟁 후 디아스포라 중국인사회는 세 가지 큰 변화를 겪는다. 첫째는 일본 국적을 갖고 있던 대만인들이 중국 국적을 회복했다. 둘째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일본 사회에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 이후 신이민 세대가 일본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은 그전의 세대와 달리 전문직을 비롯한 다양한 직업군에 진출하기 시작했다.³⁹⁵⁾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는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몰고 왔다. 우선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왔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일본에서는 구화교(舊華僑), 이후에 일본에 온 사람들은 신화교(新華僑)³⁹⁶⁾라고 칭하는 구분이 생겨났다. 구화교는 주로 대만(台灣), 복건(福建), 광둥(廣東), 삼강(三江: 江蘇 강소, 浙江 절강, 安徽 안휘), 산둥(山東) 그리고 화북(華北)지역 출신들이었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일본이 대만을 통치했던 이유로 일본의 디아스포라 화교 중에는 대만, 화북지역 출신들이 많은 특징을 보였다. 구화교의 경우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았으나,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로 대만과 수교가 단절됨에 따라 대만계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다시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이들이 생겨난다.³⁹⁷⁾ 1972년 13,090명으로 당시 디아스포라 중국인 인구의 1/4이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한 가장 큰 이유는 중화민국의 보호를 받지 못해 일본

394) 같은 곳.

395) 위의 글, 191.

396) 일본에서는 '신화교'라는 용어는 두 가지 경우에 쓰인다. 첫째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일본에 들어온 대만 출신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인다. 둘째는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일본으로 이주한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이들을 신이민으로 호칭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첫 번째 의미로 사용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자주 사용하는 신화교는 둘째 의미를 지닌다.

397) 華僑華人事典編輯委員會, 『華僑華人事典』, 191.

거주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도 취득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무국적자가 되었다.³⁹⁸⁾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는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사회에 두 개의 분열된 중국의 탄생을 경험케 했다. 그리고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사회는 이제 일본,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세 개의 국민국가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사실 이런 기류는 이미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면서, 아니 그전 국공내전 때부터 시작되었다. 동아시아 냉전의 기류가 이제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사회에 더 강하게 흐르게 되었다. 일본은 공산당을 기존의 정당 안에 허용할 만큼 느슨한 반공사회였다. 이로 말미암아 다른 지역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사회와는 달리 일본의 중국인사회는 냉전의 대립구조가 견고하게 형성됐다. 디아스포라 중국인사회는 중화민국과와 중화인민공화국과로 분열됐다. 그리고 서로 쟁탈전이 벌어졌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기관인 학교를 놓고 슬픈 쟁탈전이 치열하게 반복됐다. 고베 중화 동문 학교의 경우에는 1949년에서 1952년 사이에 중화인민공화국과와 중화민국과의 분쟁으로 교장이 6번이나 바뀌었다. 이런 냉전 구조가 가장 선명한 곳이 요코하마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회였다. 고베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화인민공화국 우세지역으로 기울어졌다.³⁹⁹⁾

1980년대 이후 일본에 이주한 신화교로 불리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의 영향으로 선진국 일본에서 선진 기술을 배우려고 온 유학생 그룹이다. 이들은 주로 고학력자로서 일본의 대학, 대학원에서 학위를 하고 바이오, 컴퓨터, 기계 등 전문 분야를 배어 졸업 후 일본의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취업했다. 이들은 주로 북경, 상해 등 중국의 대도시 출신들이었다. 이들은 일본 거주 디

398) 이은상, 박규태, 왕언메이, 이창호, 이토이주미, 『20세기 동아시아 화교의 지속과 변화』, 서울: 심산, 2017, 179-180.

399) 위의 글, 146-189.

아스포라 중국인의 주류를 형성했다. 두 번째 그룹은 주로 일본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온 노동자들이었다. 복건성(福建省) 출신들이 많았다. 이들 중에는 불법 체류자도 많이 발생했다. 세 번째 그룹은 잔류고아(殘留孤兒), 잔류부인(殘留婦人)들이다. 이들에게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귀국한 일본인과 그들의 가족과 후손들이다.⁴⁰⁰⁾ 일본은 러일전쟁 후 많은 자국민을 만주에 이주시켰다. 당시 이런 일본인이 중국의 동북 삼성에 거주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소련이 참전하면서 중국 동북 지방으로 진격했다. 이때 이 지역의 일본 이주민 중 대부분 남자는 징집되어서 전쟁터에 나가 있었고, 현지에는 노인, 부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만 남아 있었다. 그러다 급작스럽게 패전이 선언되고, 홀로 남겨진 노인, 부인, 아이들이 패전 후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중국의 동북 지역에 방치되었다. 이들은 중국인들의 가정에 입양이 되거나, 결혼해서 살아남았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국교가 없는 가운데 1958년 집단 귀국이 종료되자 이들은 현지에서 중국인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중국의 개혁, 개방과 중일 국교 회복이 계기가 되어, 1981년 일본의 후생성(한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이 본격적으로 가족 찾기를 실시하고 귀국을 알선했다. 이렇게 중국인으로 살다가 귀국한 일본인, 일본인 후손들을 잔류고아, 잔류부인이라 불렀다.⁴⁰¹⁾ 이들은 크게 중국 지역과 사할린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대부분이 중국 동북삼성 지역에 거주했었다. 잔류고아의 인구 통계는 후생성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 남아 있는 사람은 3,818명, 영구 귀국한 잔류고아는 2,557명(가족 포함 9,381명), 잔류부인은 4,167명(가족 포함 11,530), 일시 귀국자 중 잔류고아는 6,059명(가족 포함 10,189명), 잔류부인은 4,627명(가족 포함 7,382명)에 이른다.⁴⁰²⁾

일본의 경제, 사회는 일본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 노

400) 박수민, 『한눈에 보는 디아스포라 선교』, Tokyo: JCC, 2016, 72.

401) 이은상, 박규태, 왕언메이, 이창호, 이토이주미, 『20세기 동아시아 화교의 지속과 변화』, 227-228.

402) 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bunya/engo/seido02/kojitoukei.html, 접속일: 2021년 3월 9일.

동력이 필요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이주 흡인요인과 연관되어 개혁, 개방을 시작한 중국에서 일본을 향한 새로운 이민 물결이 있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만성적인 노동인력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고, 1981년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만들어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유인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어 학교를 만들어 많은 자비 유학생들을 흡수했다. 이들에게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서 생활비를 지급하면서 유학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고 졸업 후 대학이나 대학원, 직장생활이 가능하게 해서 일본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 제도를 통해 일본에 들어온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이들 중에 많은 유학생이 졸업 후 생활 여건이 중국보다 유리했던 일본에 정착했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인구는 급증해서, 2007년에는 60만 명으로 그동안 일본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수를 기록했던 한국인을 제치고 가장 큰 그룹이 되었다.⁴⁰³⁾ 그 후에도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은 지속해서 증가해서 2020년 6월 현재 786,830명으로 여전히 전체 외국인 중 가장 많다.⁴⁰⁴⁾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인구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감소했다. 그 이유로는 베트남인들의 급속한 증가가 중국인들에 대한 필요를 어느 정도 대체하고 있고, COVID-19의 영향으로 이동의 제한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중국인들의 일본 이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동남아 지역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과는 매우 구별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경제적 지위다. 동남아 지역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 정부와 현지인 사이에 중개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경제적 우위를 차지했다. 그에 반해서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일본 국민보다 취약하거나 비슷한 정도에서 머문다. 일본에는 동남아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과 같은 중국계 거대 기업이나 사업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동남아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과는

403) Miles, *Chinese Diasporas (New Approaches to Asian History)*, 231.

404) <https://www.e-stat.go.jp/dbview?sid=0003416093>, 접속일: 2021년 3월 9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격차다. 둘째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정체성이다. 동남아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은 대부분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만, 계속해서 민족성 정체성은 유지한다. 그러면서도 국가 정체성은 거주국의 정체성을 표출한다. 그렇지만 일본의 디아스포라의 경우는 모국 국적을 유지한 이들과 거주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로 나뉘는데, 전자는 강한 모국 지향적인 정체성, 후자의 경우는 거주국 정체성이 아니라 다중정체성을 드러낸다.⁴⁰⁵⁾ 재미있는 사실은 연구자가 일본에서 만났던 많은 디아스포라 중국인 가운데(국적이 어디인가와 상관없이) 일본 국적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 이는 중국보다는 자신이 몇 대에 걸쳐서 사는 거주국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동남아 디아스포라 중국인과 매우 구별되는 특징이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일본의 디아스포라 한국인들과 비슷한 정체성 문제를 겪었다.⁴⁰⁶⁾ 이들의 정체성에는 복잡한 역사적 이유가 있다. 이들이 떠난 조국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뉘면서 어느 나라 국민인가 하는 국민국가 문제가 남게 되었다.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대만의 틈새에서 자기 의지와 관련 없이 정체성을 강요당해야 했다. 이 일은 끊임없이 반복됐다. 냉전의 시대에는 선택이 오히려 쉬웠는데, 탈냉전이 되면서 일본의 디아스포라 사회는 친공(親共)과 반공(反共)으로 혼란을 앓았다. 그뿐만 아니다. 친중국적인 이들에게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 정체성과 부합했지만, 친대만 경향의 이들에게는 그 반대였다. 특히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 이후 친중국적인 이들 중에 실망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이들이 늘었다. 그렇다고 대만 국적을 취득한 이들이 대만에서 진정한 국민으로 취급을 받은 것도 아니다. 이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국방의 의무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대만에서 볼 때 진정한

405) 임채완 외 4인, 『화인 디아스포라의 다중정체성과 모국 관계』, 경기: 북코리아, 2019, 55-56.

406)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한국인도 중국인들과 비슷한 역사적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침략, 식민지, 독립, 남북의 대립, 공산주의의 북한과 민주주의의 한국 사이에서의 대립과 긴장, 이 모든 복잡성이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한인, 특히 식민지 시대에 일본으로 도항해 대를 이어 일본에 사는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 무국적자들에게 나타난다.

국민이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1994년 대만정부는 대만에 온 디아스포라 중국인 학생들에게 호적과 신분증 배포를 중지하고 여권은 있지만, 호적이 없는 무호적자 국민으로 정의했다. 일본에서 출생한 일본 태생의 대만 배경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대부분 호적이 없다. 이들은 이렇게 국민의 통합에서 배제됐다. 이들은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대만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국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일본인인가? 일본에 세금을 내고 의무를 다한다고 해도, 혈통주의 단일민족의 일본에서 진정한 일본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는 대만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같았다.⁴⁰⁷⁾ 이들은 어디에 있는지 경계지대를 살아가는 주변인일 뿐이었다. 진정한 나라, 진정한 고향을 찾지 못하는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혼돈은 디아스포라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모국이 이념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 거주국이 이주민에게 배타적 성격이 강하다는 문제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면이 있다.

C.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의 이해와 특징

본 논문에서는 세계적으로 일어난 대규모 이주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이 이주의 현장에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공간이 탄생했음을 논증했다.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의 공간이 선교의 공간이라는 주장을 견지했다. 또한 위기의 시대에 중국선교를 지리적 영토개념을 넘어서 공간개념으로 접근해야 함을 제안했다.

이 장에서는 2004년 5월부터 2021년 9월 현재까지, 일본 거주 중국인 디아스포라 가운데 수행됐던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의 현장을 디아스포라 선교의 주요 특징에 따라 분류, 정리,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가 위기에 처한 중국선교의 새로운 선교공간이 될 수 있음을 실증한

407) 이은상, 박규태, 왕언메이, 이창호, 이토이주미, 『20세기 동아시아 화교의 지속과 변화』, 187-189.